

도청별관 일부 존치...문화전당 어떻게 되나

설계부터 다시...비용 늘고 개관 차질

당초 2012년보다 2년이상 개관 늦춰질 듯 지역사회 논란 빛은 국책사업 좌표수정 선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옛 전남도청 철거 입장에서 물러나 별관의 일부를 존치기로 함에 따라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문화전당 설계안을 철저히 문화전당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지는 등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책사업이라도 해당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좌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남게됐다.

이뤄졌기 때문에 부분 설계변경에서 벗어나 전체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 변경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따른 추가 예산은 120억원~165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3분의 1 보존안을 택하더라도 문화전당 개관시기는 2014년 3월이나 2014년 5월로 늦춰진다.

◇정부 왜 입장 선회?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별관 철거를 전제로 한

문화전당 설계위원을 고수했으나,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별관 철거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민의 정서를 감안, 보존 방법으로 가급적 게이트 안(5월의 문)으로 해 주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에 일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주시장의 건의를 존중하되 보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은 "별관을 보존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전당 현재 공정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광주 시내 7개 권역에 오는 2023년까지 5조3천억원이 투입되는데 문화전당사업비는 7천894억원에 이른다.

예초 문화전당은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옛 도청 별관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상태로, 8월 현재 문화전당 건립 공정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또 별관 철거가 지연되면서 터파기 공사만이 진행되고 있는 등 사실상 공사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별관 철거를 전제로 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전당 재설계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광태 광주시장, 김영진, 조영택 의원 등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권 그린벨트 언제, 어디가 풀릴까

광산구~장성군 경계 집중 개발 가능용지 크게 늘 듯

전국 7대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보존가치가 비교적 낮은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해제된 기본 방향으로 지가상승이나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 방지, 해제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 환경평가 3~5등급 지역이면 시 동시에 면적 20만㎡ 이상 등을 정해 두고 있다.

이번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련부변경' 용역을 수행중인 광주발전연구원(이하 광주연)은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함평군 등의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폭인 30%의 추가해제가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역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화·체육시설이나 산업용지 등 유력 = 광주연은 추가해제한 개발제한 구역의 활용방안으로 광주의 경우 호남 광역경제권 전략산업인 신성장동력 활성화와 첨단녹색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조성사업과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연계한 문화스포츠 클러스터 구축 등을, 광역권 내 전남 각 시군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부응하는 생물 및 생명산업 허브 구축,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인 R&D (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을 들었다. 따라서 광주의 경우 추가로 해제되는 지역에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 또는 최근 이슈가 되고

내년말 장소·면적 최종 확정 문화·체육·산업용지로 활용

◇개발가능용지 크게 늘듯 = 광주시와 전남 각 시군의 기존 해제 예정면적 각각 25.07km², 20.72km²에서 이미 해제가 완료된 지역은 20.41km², 15.38km² 등이다. 이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잔여면적이 각각 4.66km², 5.34km²에 불과했던 광주시와 광역권 내 전남 각 시군은 오는 2020년까지 개발가능용지를 추가로 각각 7.52km², 6.21km²씩 확보함으로써 향후 도시용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연도 30%의 추가해제가 필요한 사유로, 광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외 개발가능용지 확보 곤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도시성장관리에 필요한 도시용지 공급을 들었다. 또 전남도는 ▲대도시권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우수한 입지 활용 ▲광주광역시 다핵화 추세 반영 등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원대토 3~5등급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장성군과 광산구 경계 등 광주의 서쪽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 지

있는 야구장 신축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 장소 및 면적 결정 = 이번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총량만을 결정하며, 정확한 장소나 면적은 광주시와 광역권 내 전남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올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빨라오 오는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나 도시 외곽 녹지 파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5개 시군의 면적 2천995km²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개발제한구역은 554.77km²다.

광주연 정하옥 박사는 "공청회는 계획을 수립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첫 단계로 앞으로 의회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야 결정된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녹지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박차 추진위 위원 7명 추가 위촉

광주시가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2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상황과 추진 주체측 최근 동향, 향후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지역의 저명인사 7명을 유치추진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 광주 유치추진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후보지 결정이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14일 경남 마산시의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건의서를 기념사업회에 제출하고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여전히 서울지역을 후보지로 염두해 두면서도 지방의 후보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유치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임원진을 대상으로 위원별로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한 유치활동도 병행 추진하는 등 광주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기념사업회 등 관련 동향 파악도 전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광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

하다"며 "향후 한국민주주의 전당 후보지 결정 때까지 전당 유치를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한국민주주의의 전당'은 3만5천여명의 부지에 1천400여억원의 국비를 들여 건립될 예정이며 상설 전시관과 사료관, 연구소 등을 갖추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세계기스타·세기보청기

1588-0400/060-722-0100